

- 2020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 6월 17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0. 6. 2.(화) ~ 6. 9.(화) [기간 중 6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 염리동 주민센터, 연남동 주민센터

4. 감사실시 결과

가. 감사반 편성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장] 김 영 미 [부위원장] 정 혜 경 [위 원]	복지교육국	복지도시 위원회실	최종익	임하모
	권 영 숙, 김 진 천 서 종 수, 장 덕 준 채 우 진, 최 은 하 한 일 용	도시환경국 보건소		신준호	송미희
		염리동주민센터 연남동주민센터		최종익	임하모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 부서 및 주민센터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2020. 6. 2. (화)	염 리 동 주민센터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0. 6. 3. (수)	연 남 동 주민센터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0. 6. 4. (목)	복 지 정 책 과 생 활 보 장 과 노 인 장 애 인과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0. 6. 5. (금)	여 성 가 족 과 아 동 청 년 과 교 육 지 원 과 마포중앙도서관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20. 6. 8. (월)	주 택 과 도 시 계 획 과 건 축 과 도 시 안 전 과 환 경 과 공 원 녹 지 과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2019. 6. 9. (화)	보 건 행 정 과 위 생 과 건 강 증 진 과 의 약 과	복지도시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5.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복지정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상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동일한 복지혜택 서비스를 중복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고민해주시기 바람
-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보면, 구에서 3억 7백만원이 지급됨에도 실질적인 사업비용(4천 5백만원)보다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명목 등으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 단체의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비의 예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 영리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자료를 보면, 개관시기가 6월로 예정이 되어있음. 과거의 아현동의 데이케어센터 건립 관련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건축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관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기 바람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음.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재난긴급생활비 역시 중복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지급 후에 환수하지 말고, 사전에 중복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지원에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조해주는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연남동 공영주차장 부지 위에 마포하우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남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주차장 위, 2층·3층에 마포하우징 사업을 위한 공간을 건축하여 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 마포하우징사업 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주택 지원사업 관련하여 각 동에 있는 주차장 상층부를 증·개축할 때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패턴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이 설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동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 경과를 지켜보면, 집수리 이후에 집 내부상태 개선이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빌미를 주게되어 오히려 임대인이 더 어려움을 겪게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서에서는 마포하우징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취약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과 같은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 2020년 주거안정자금 용자 및 지원대상이 4가구로 되어 있음. 조례에는 용자금 지원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을 3천만원이나 5천만원으로 높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부정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에게 문자 발송 및 사전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부서로부터 받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조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 노인장애인과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및 전염병 등이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하절기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분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마스크 등 방역도구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마포하우징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생활패턴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이 설계될 수 있는 방안을 생활보장과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음.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 구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AAC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용교육, 보완사항 및 예산확보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 현재 마포중앙도서관 앞에, 성산2교 쪽 제일성모병원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간격이 굉장히 넓은. 주유소 주변에 횡단보도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쪽으로 장애인들이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부서에서는 대안 마련을 위해 도로과 등 유관부서와 적극 협의 후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 우진학교 학생 및 장애인 학부모 심리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어 전문적인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지원 서비스 등이 매우 필요하므로 유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 여성가족과

- 기존의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대단위 지역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신규로 확보된다거나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에 연남동, 성산1동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구립어린이집 수요욕구에 비해 구립어린이집 추가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부서에서는 동별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유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 사항들이 확인됨.
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급식 위생에 문제가 있다거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우므로 비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지도·감독 등 감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유배우자 출산율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혼인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부서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혼인할 때 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한다든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관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이 분들이 그 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기여했던 노력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검토해주기 바람
- 작년도 미혼모 발생건수를 보면 6건으로 나와있음. 미혼모의 경우에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법적 테두리 안에 편입되지 못한 결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음.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어 최근 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나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부서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연구하여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도록 번역 기능이 지원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국어 번역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부서에서는 인터넷 브라우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자체에서 다국어 번역기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하나로 운영되어야함에도 별도의 사이트로 운영되어 홈페이지 사이트 이용자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다국어 번역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홈페이지와 관련된 지적사항을 보완 조치하고, 또한 운영관리 예산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구에서는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친화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장애인 친화도시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돌보미분들의 활동이 많이 줄고 그에 따른 수입도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70%정도의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아이돌보미분들의 보호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아동청년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사업활동이 매우 저조하며, 전단지 배부활동을 사업 실적으로 부풀리는 것은 부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기 바람
- 아동친화도시 사업 관련 예산 자료를 보면, 책자 발간,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자문수당으로 대부분 집행되고, 9천 9백만원 예산 중 7천만원을 단순 물놀이 비용으로 지출하였음.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이 아동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 사업에 대한 교육 내용을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SNS 등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청소년 지원서비스하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서비스 등 장애아동이나 일반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학교측에 사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자립 기반 구축 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포럼,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음. 청년 포럼이나 공론장에서 정책적인 내용들이 제시되면 그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구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개최 시에는 구의원도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가 금년도 10월에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음.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피해 대상자를 적시에 바로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주기 바람
- 아동의 국내 입양 관련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총 164건의 입양 신청 대비 52건의 입양이 이루어졌음.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 신청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더 원인 파악을 통해 국내입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교육지원과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조치 관련하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공립과 사립 학교간에 구분 짓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지원을 해주기 바람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구비 5억원을 포함하여 14억 8천만원 정도의 규모있는 예산이 투입 되므로, 외부 민간단체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압력이 있다하더라도 부서에서는 하반기에 무리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주기 바람
-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 등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관내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합당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인문학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또는 퇴근길학교 야간과정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주기 바람

-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 자료를 보면 국내학교 시설이 외국 시설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환경개선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관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굉장히 노후화 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용강초등학교의 예를 보면 공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의 내용을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람
-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제안들이 때로는 규모있는 예산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마포혁신지구 지역사회위원회 명단을 보면 마포혁신지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단체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거나, 한 단체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기 보다는 여러 위원회에 걸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부모나 장애아동을 위한 단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특수교육 전문교사의 운영위원회 위원 미참여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해주시기 바람
- 관내 일반학교를 보면 132명의 장애아동이 특수학급으로 같이 학교수업을 듣고 있지만, 장애아동이 일반학생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학습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반 학생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 부서와 협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학교 교육을 진행시 일부의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과잉행동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있음. 과잉행동증후군 증상이 발생하면 아이들의 심리상태 및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활용해서 전문심리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제안해주기 바람

■ 마포중앙도서관

- 마포중앙도서관 입구 안쪽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차량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속방지턱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주기 바람
- 도서관에서 서적 구매 시, 라벨링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도서업체를 선정하다보니 관내의 소규모 동네서점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라벨링 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도서관에서는 소규모 동네서점과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현재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학교에서는 학교 밖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이 요구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도서관 소방안전 훈련 시, 도서관 직원 및 도서관 내 상가, 상주 업체 직원의 경우는 도서관에 많은 인원의 이용자나 방문객들이 있는 화재 상황을 감안한 화재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1년에 상·하반기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토목 공사 과정에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도서관에서는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람

▣ 주택과

- 아현동 69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용역기간이 4월에서 12월로 연장되었는데 주택과에서 주민동의와 악성민원으로 고생이 많은 것을 알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많기에 주택과에서 독립적으로 잘 해결해 주기 바람
-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아파트 내 CCTV, 놀이터 관련, 수목식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시설 보수 부분은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도 가능하니 시설부분보다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모여 활동화하는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바람
- 공동주택 지원 중 CCTV, 놀이터, 수목식재, 에너지절감시설 등(전기차 충전소 등) 설치에 있어 각 분야별로 구청 내 소관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내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 진척 속도에도 문제점이 있으니 검토바람
- 공동주택사업 지원사업 지원내역 중 CCTV 설치 지원금액의 교부액, 정산액이 2018년도와 2019년도 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데 아파트의 CCTV 설치지원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실시간 소통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니 사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실시간 또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서 공사 진행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면 더 효율적인 쌍방향 소통이 될 것임
- 관내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회전반경이 좁고 덮개 설비가 안 되어있어 눈 비 올 때 미끄러워 위험한 주차장이 많은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안전한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진출입 보수 분야도 포함시켜 안전하게 관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람
-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중 보수보강, 시정지시가 많은데 이러한 시정지시 외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주택 안전에 신경써주기 바람, 전국최초 재난안전분야 6년 연속 1위를 한 지자체로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주택 안전 상황을 파악하여 마포구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람

▣ 도시계획과

- 공덕시장 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던 만큼 소관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바람

-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마포구에는 아직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화 해야 될 지역과 이미 도시계획이 진행돼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친화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주도록 부서에서 노력바람

-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사업에 16개동 주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동별 주민참여단 구성시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할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움. 소관부서에서 주민참여단 인적 구성에 대해 검토바람

-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사업 추진중으로 최근 장애인들의 소통 문제나, 마포장애인복지관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문제 등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중앙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니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만큼 안전에 각별한 신경 써주기 바람

○ 상암 DMC 롯데쇼핑몰 유치 추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되어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나, 우리 마포구와 롯데그룹의 입장 차이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무산되어 사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 구에 그런 시설이 유치되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니 부서에서 적극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람

○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상인들과의 재계약 문제, 어떤 특정기업의 재계약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어 우리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마포의 도시계획 소관 부서에서 농수산물시장 장기발전방안으로서 미래의 시장 공간 구성 및 활용에 대해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 서울에 5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서북지역에도 거점 도서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양천, 강서구에 위치한다고 함.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이용객이 수색, 강서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쪽 도서관건립이 추진되면 지금의 마포중앙도서관을 시립으로 하고 그 대신 건축비를 구에서 받지 말고 농수산물시장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으니 검토바람

- 도시계획 용역에는 법정계획이 많은 반면에 다른 부서 일부 용역에서는 참고용으로 용역을 하여 그 결과가 나오면 덮어두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용역을 할 시에 사전심의나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 절차가 필요하니 검토바라며, 앞으로 용역 총괄하는 용역관리 조례 제정이나 마포구 용역 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바람

- 2020년도 서울화력발전소 공원화사업이 준공되고, 차량 수요파악 등 교통계획 수립 후에 당인리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보류되었던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다시 할 계획이라는 결과를 들음.
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추진결과 보고바람

- 마포한강푸르지오 상가 내 신한류플러스센터 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는 전혀 없었음. 용도변경이 되면서 소관부서가 복지교육국으로 넘어갔는데 입주 예정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만 책정하여 추후 의회의 예산 원안 통과에만 급급하지 않기 바람

-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일대, 어울마당로 일대, 연남동 일대 지하공간 활용한 주차장 사업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인데 지하공간 중 지하1층에는 악기점이나 예술가들의 공간으로서 연습장이나 소강당을 확보해주어 흥대 부근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떠났던 아티스트들이 흥대쪽으로 다시 돌아와 저렴한 실비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바람.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발전소 지상공원화 사업)

- 발전소 내 지상공원화 사업이 90%이상 진행되어 6월 말 준공인데 처음 공원 설계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많음. 지상부 공원화 사업 현장을 확인하니, 시민들에게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처음 목적과 달리 현재의 공원 조성 모습은 발전소 직원들의 점심 후 산책 코스로 느껴짐. 처음 설계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은데, 개방구역 부분에 다수의 발전소 관련 시설물들이 지상위로 세워져 있음. 당초 발전소가 모든 건물은 지하화시키고 그 지상부에는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할겠다는 약속과 전혀 다른 상황임. 발전소 임시허가를 내어 준 도시계획과와 지상부 공원 총괄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재검토바람.

- 지상부 공원에서 한강 전망이 가장 좋은 위치에는 남녀노소 시민들이
 뜻자리 깔고 편히 쉴 수 있는 광장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고가(高價)의
 금잔디를 심어놔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됨. 이에 대해
 재검토 바람

- 공원 자체에 출입구가 없이 어느 곳에서나 출입이 가능한 모습의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발전소에서는 출입구를 따로 만들 예정이라고 함. 출입구
 설치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공원 내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 설치를 요청했으나 지금 놀이시설이 설치
 된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시민들이 머물기에 너무나
 협소한 규모임. 놀이시설 증축 설치에 대한 재검토 바람.

- 발전소 건물 옥상이 시민 개방구간인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가 보안시설 내에 위치해있으며, 출입증이 있어야 지나가는 차단기를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음. 시민들이 자유롭게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바람

- 공원 내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트랙이 중간에 끊겨서 주민들이 오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야 하는 길로 설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트랙 이용에 불편을 느낄 것임. 이에 대해 발전소와 다시 협의바람
- 마포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이 처음 설계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아쉬움. 주차장 쪽에도 발전소 시설물이 지상부에 세워져 있으며 그 앞에는 발전소 독신자 숙소가 들어올 예정인데 독신자 숙소 인허가 전에 발전소와 재협의 바람.

▣ 도시계획과, 도시안전과, 생활체육과

- 현재 마포구의 안전 관련하여 도시안전과의 건축안전센터도 생기고, 전문 안전체험센터나 교육장이 없어서 구의회 옆 로비 1층에 심폐소생술 교육장도 만든 실정임. 상암동 박영석기념관에 문화체육관광부의 50억 정도의 지분이 있어 대주주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사업예산 전액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로 시행될 것임을 볼 때, 마포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하여 그 기념관 시설을 활용하면 그 쪽에 소각장이나 에너지파크 이용, 노을공원, 하늘공원 이용과 더불어 한강이 가까우니 생존 수영 교육 등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임. 그 곳에 안전센터 설립이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 건축과

-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이라도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물에는 꼭 필요하므로 민간에도 권고해주기 바라며, 향후 업무보고자료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는 사업내용이 추가되기 바람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잘되어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업체와 수의계약시 의혹 제기 문제 등은 차단해주고, 이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 대상자들의 만족 여부가 중요한 만큼 부서에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잘 진행해주기 바람
- 마포구에 고시원을 관리감독하는 곳이 없음. 행정적으로 민원이 생기거나 안전문제가 발생해도 민원 제기할 곳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곳으로 주민들이나 고시원 업주가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니, 소관부서 지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 건축과, 주택과

- 재건축·재개발 추진 전, 건축 제한행위를 하기 전에 쪼개기가 극심하므로 재개발·재건축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과와 주택과 등 소관부서가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그와 같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미칠 것이므로 양측 부서가 협의 바람

■ 도시안전과

- 「어린이안전캠프 개최」 내용에 생활안전, 수상안전, 완강기, 화재대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완강기 체험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성인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을 검토바람

- 위반건축물 향측조사시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함께 하여 위험건축물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술개발도 검토 바람

- 무허가건축물 단속과 시정명령 부과시 생활이 어렵거나 법적지식이 부족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이 있을 테니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단속 처리 바람

- 옥상 태양광시설 설치 가구에 향측조사에 의한 항공촬영으로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건축물 통지서를 받아 매우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은 불합리하고 행정력 낭비로 보임. 서울시 향측통보가 오더라도 마포구 옥상 태양광시설 설치 가구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있을 테니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통보가 오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바람

-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무허가건축물인데 재난위험시설로 결과가 나와서 소유자에게 보강조치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무허가 건축물이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건지 이해 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그런 불법건축물 존치가 왜 계속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 사항임. 세월이 흐를수록 위험도는 더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바람

■ 환경과

- 관내 분뇨수거대행업체가 3개로 선정되어 있으며, 분뇨수거청소를 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6개월에 한 번, 9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으로 나누어져 있음.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므로 이 법적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부서에서 조치해 주기 바람
- 정부시책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와 최저임금 상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분뇨수거대행 3개 업체에서는 굉장히 적자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수거료도 8년 동안 동결상태라고 함. 분뇨수거업종이 누구나 기피하는 직업인데 그 직업에 한해서는 다른 종류의 직업보다는 임금 우대를 해 줘야 될 것임. 임금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충전소 설치 현황에 공공기관에 급속 충전기가 24대인데 숫자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있음. 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욕구도 높는데, 교사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하면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 사용자가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AS를 하는 형식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람

- 취약계층 미세먼지 보급에 있어 여름철 호흡이 어려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계절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마스크 종류를 구매하는 것이 좋으니 검토바람.

- 구민건강을 생각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실적과 추진계획으로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정화기 3대와 미세먼지 저감벤치 3대 설치라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미세먼지 실적과 대책이라 하기에는 그 개수부터 매우 미약하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기 바람

- 치매노인 독거어르신 가정에 반려식물 보급 사업 계획이 있는데 관내 어르신들 방문하여 반려식물을 드리면 쌀, 라면 등 식료품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며 너무 고맙다는 분들이 많음.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므로 확대해서 시행해 주기 바람

▣ 공원녹지과

- 마포구 500만 그루 식재 사업 중 학교 숲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때 숲 조성 공사를 선행할 수 있었으면 학생들이 개학해서 우거진 숲 풍경을 볼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음. 앞으로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돼서 당초 계획 달성에 신경써주기 바람.
- 녹지대의 수목 식재 보다는 식재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함. 주민들에게 도심 속 푸르른 나무가 주는 힐링이 크니, 주민들을 위해 녹지대나 공원에 나무가 말라죽거나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목들을 잘 관리해주기 바람

보건소

■ 보건행정과

- 코로나19 사태로 몇 년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 큰 사회문제이니만큼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살예방 관련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우리나라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음. 자살률이 우울증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의 우울증을 떨쳐버릴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기 바람
-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근처에서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안심하고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예전에 비하여 에이즈 감염 및 예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니만큼 예방 및 진료 지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관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방역소독이 잘 되고 있는데 방역소독으로 봉사하시는 새마을방역봉사자들에게 실비나 목욕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활동하는데 있어 사기진작이 되므로 소관부서에서 예산 확보 등 신경써주기 바람

-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마을방역봉사대의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를 보았는데 자치행정과와 위생과의 자료 수치가 다름. 자치행정과의 새마을지도자 방역 봉사과 보건행정과의 새마을 방역 봉사대의 지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되어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도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시정바람

■ 건강증진과

-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자살 생각률이 14%이며,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1위인데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유익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바람

- 각동주민센터에 파견된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건강증진과 소속 직원들로서 동장이 그 방문간호사들에게 갖고 있는 권한은 없는데 출장 등의 복무상황은 보고해야 하며 서로 그 정도의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봄. 동장과 방문간호사들의 관계 개선을 검토 바람

■ 위생과

- 코로나19 로 인해 관내 주민이 이용하는 작은 규모의 식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폐업하는 식당들이 늘어난 만큼 관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면 좋겠음
- 3~4년 전 옥외영업 허용하자는 제안(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음. 경기침체에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식당 자영업자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임. 6월부터는 더위까지 더해져 식당 영업에 피해가 더 많음. 요즘 코로나로 인해 건물 내부 식당보다 야외 식사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함. 이에 타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은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우리 마포구도 일시적이라도 옥외영업 허용을 강력히 제안하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각한데, 음식점·업소등에서 식품위생 기금 지원이나 융자 신청이 있으면 기금 목적에 맞게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써주기 바람

■ 의약과

- 서강보건지소 사업은 동 주민센터의 방문건강관리와 프로그램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현재 마포구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진료가 거의 중단된 상태로 기존에 서강분소를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던 그 지역 어르신들이 서강보건지소가 되면서 지소에는 진료가 없어 처방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음. 서강보건지소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이런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해 주기 바람

동 주민센터

▣ 염리동 주민센터

- 공유의 부엌이라는 특수사업을 향후 코로나19 감염증이 진정될 이후 추진 시,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집단감염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역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 우리동네 마을쉼터의 사업기간이 2020년 5월 ~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추운 계절과 휴한기 외에는 쉼터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 동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보면, 집 수리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든지 하여 세입자보다 오히려 집주인이 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소금이 지나는 길, 염전체험 등 염리동만의 역사적인 현장을 IT 기술로 재현한 VR체험 등을 1년에 1번 진행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영리동에는 영리종합사회복지관, 주민편익시설 등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영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입주하게되면 주민들 간의 상호 이견이 발생하여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 등 주민들의 오해 소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적극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또한, 영리동에 들어설 치매안심센터에는 성산동, 상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리동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부서와 조속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영리동 주민센터 구 길은 통행로가 매우 좁음. 앞으로 입주하게 되는 영리3차 아파트 및 영리3구역의 주민들의 인원이 늘어나면 좁은 통행로는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선 방안을 부서와 조속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어려운 이웃들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호소를 할 수 있는 복지상담실이 상담 이외의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가정사를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고 있음. 영리동에서는 충분한 복지상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람

- 타 동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임대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상가들이 많이 있는 염리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착한임대인 발굴 사업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람
- 신수동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 대규모의 전입 인구가 들어오면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받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염리동에서도 염리3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할 것을 감안하여 방문출장소 운영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금년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추경 심사 시, 각 동별로 초미세분사기를 배치를 하여 상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으나, 염리동 장비 대여장부를 보면 실제 대여비율이 낮으므로 동에서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대책 등 방안 마련에 적극 조치해주시기 바람
- 염리동의 소금축제 및 황부자 연극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음. 소금의 변천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발전된 축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지만, 곧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염리동 내의 재개발, 재건축 위험장소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연남동 주민센터

- 연남동은 홍대지역과 인접해 있고 특히, 관외 지역 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므로 코로나19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주시기 바람
-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초미세분사기를 각 동별로 비치하여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상가 주민들이 상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으나, 연남동 장비 대여장부를 보면 수동식 분무기 대여기록만 있을 뿐, 초미세분사기에 대한 대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초미세분사기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대책 등 방안 마련에 적극 조치해주시기 바람
-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긴급생활비를 구민들에게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 민원이 발생 시, 부적격 이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이 상처 받지 않게 친절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유동인구가 연트럴파크를 주로 방문하는 요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임에도 연트럴파크 지킴이 봉사단이 토요일, 일요일에 활동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서 연트럴파크가 가장 지저분해질 수 있는 시점에 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 연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 복지지도를 100만원예산으로 6천부를 제작하는 것은, 그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100만원 예산으로 6천부를 제작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복지지도를 종이로 제작하는 것 보다는 휴대폰 어플로 제작하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 바람

나.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20년 7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